

빅토리아의 4주간의 경험과 배움

김우현

기계공학전공 202124072

rladngus5797@gmail.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들어가는 말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어학연수를 신청한 이유는 대학생할 중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다른 국가에서의 생활이 궁금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를 가기 전 여행을 좋아하던 나는 주로 아시아 국가 들로만 여행을 해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장거리를 비행하며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소통하고 배운다는 것이 조금 걱정이었고 빅토리아 대학이 밴쿠버공항에서 버스와 페리를 타고 가야 한다는 점이 조금 두려웠지만 캐나다 현지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길을 물어보면 잘 알려 주어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연수 대학 소개

캐나다는 남한면적의 100배이지만 인구는 4천만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적다 주로 도심은 미국과 국경선에 있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와 같이 대도시들이 미국국경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지인 로키산맥과 만년설산이 있으며, 비행기에서 7월 여름이지만 설산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캐나다 서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앨버타주 북쪽으로는 알래스카, 남쪽으로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도는 밴쿠버 섬 남단에 위치한 빅토리아이며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로 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며 내륙지역은 좀더 건조하고 겨울이 추운 것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은 가장 큰 도시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공항을 이어주는 스카이 라인, 도심과 도심을 이어주는 익스포라인, 밀레니엄라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밴쿠버 도심 대중교통으로는 수상버스와 도심 시내 버스가 있습니다. 밴쿠버섬 빅토리아에는 철도 교통은 없지만 캐나다 국내선과 미국 시애틀로 가는 빅토리아 공항과 버스교통이 잘 되어 있었고, 인구가 약 390000만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시내버스가 새벽 2시까지 다니며 배차 간격도 길지 않았습니다. 단 밴쿠버와 빅토리아 대중교통 가격이 한국에 비해 비쌌지만 빅토리아 같은 경우 연수학교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밴쿠버 섬 내에서 다닐 수 있는 버스 교통 카드를 주어서 빅토리아 전역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 공항 철도같은 경우 밴쿠버 공항으로부터 3정거장만 가도 원화로 9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고 버스도 한번 탑승할 때 약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교는 공립 연구중심 종합 대학교입니다. 영문은 University of Victoria인데 주로 줄여서 유빅(Uvic)이라고 불립니다. 빅토리아 다운타운에서 버스로 약 20분 정도로 걸리며 빅토리아 페리 터미널인 스와츠베이에서는 대중교통으로는 약 1시간 30분, 택시로는 35분 정도 거리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대학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현대적인 학습 시설이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어 산책하기에 좋았고, 사슴, 토끼, 청설모 등 다양한 동물들도 있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에는 단기 어학연수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었는데, 다양한 영문서적으로 되어있는 도서관이나 스캔이나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설은 굉장히 깔끔하였으며 도서관이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오픈형식으로 서로 소통하며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학교는 약 2km의 지름의 원으로 학교 링 로드와 있었고 그 밖에도 기숙사 및 식당 등 건물 등이 있다. 학교내 시설은 기숙사 식당 및 빅토리아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등이 있었고 시설은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학교 내에 식당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 기숙사 밑에 위치해 있으며 7월 2일부터 7월 26일까지 연수기간 동안 인당 1000 캐나다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지급된 돈은 학생증 겸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인 원카드를 지급해 주었고 식당에서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원카드로 계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도미토리는 1인실이었고, 도미토리를 들어가는 정문과 비상계단, 각 객실은 지급된 열쇠로 열어야 되었습니다. 방안에는 침대, 옷걸이, 책상, 스탠드 등이 있었고 개폐식 창문이 있었습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했으며 샤워실, 화장실은 수가 많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크게 없었습니다. 또한 각층마다 휴게실이 있었고 싱크대 및 전자레인지가 있었습니다. 2층에는 약 2.2 캐나다 달러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었고, 공용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점심때마다 베개와 이불 커버를 교체해 주어서 편리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영어 단기 어학 연수는 다양한 나라의 여러 수준의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모든 영역을 다루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합니다.

처음 반배정을 위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 곳은 CST라는 건물에서 수업과 시험이 진행됩니다. 시험은 쓰기와 말하기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쓰기는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말하기는 3명씩 조를 짜 주시는데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림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취미가 무엇인지, 여행 가본 곳 중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였는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반배정은 시험 당일 밤에 각자 UVIC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30분 까지가 1교시, 10시 40분부터 12시 30분 까지가 2교시로 진행됩니다. 오전수업은 필참 입니다. 도미토리에서 걸어서 10분거리인 CST에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1교시와 2교시 각자 다른 선생님 Victor선생님과 Fraser선생님이 지도해주시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주어주시고 수업을 하십니다. 문법과 어휘 수업을 통해 영어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읽기와 쓰기 연습을 통해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롭 토론과 발표 준비 과정을 통해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Victor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주어주고 영어로 같은 반 학생들과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하는 수업을 하셨고 캐나다의 주요 인물이나 자신의 고향을 영어로 발표하는 수업을 하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PPT를 이용해 발표하는 것을 더 선호하여 PPT를 만들어 발표를 하였고 선생님도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Fraser선생님은 교재를 이용해 수업을 주로 하셨습니다 교재는 American ENGLISH FILE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교재였습니다 교재는 회화와 듣기위주의 교재였으며 회화에 맞는 영어문법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상황별 대화 듣기, 듣고 쓰기, 조를 이뤄서 회화 수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오후 활동 지도자인 "CA"가 오후 일정안내를 해줍니다 오후 활동은 선택 참여였고, 주로 보드게임, 문화체험, 발표 등 다양한 수업을 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버스를 타고 빅토리아 명소를 소개해주시기도 합니다. 첫째주에는 빅토리아 박물관에 가서 빅토리아의 개척과 역사 과거 빅토리아 원주민의 생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차이나 타운을 가보았는데 그곳은 캐나다에서 제일 첫번째로 생긴 차이나 타운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주에는 "포르 로드 힐 엔드 피스 가드 라이트 하우스"로 과거 등대로 쓰였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셋째주에는 비콘 힐 공원에 가보았는데 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공작새 같은 경우 큰 공원에서 방치해 놓았습니다.

보드게임은 주로 처음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CA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같이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영화감상시간이나 보드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영어자막이 없어도 쉬운 만화 영화를 대부분 틀어줘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본문

처음으로 북미대륙을 가는 것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가 밴쿠버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공항 입국심사는 키오스크로 진행되며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학교가 멀다는 점과 두번째로는 마약허가 국가여서 이상한 사람이 많을 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가는 경로는 밴쿠버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페리터미널로 가는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페리터미널에 가서 페리를 타고 밴쿠버 섬 빅토리아에 도착한 뒤 다시 버스를 몇 번 갈아타서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학교까지는 대략 4시간 넘게 걸렸고 다만 교통비가 비싼 점과 페리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배차가 적었던 점이 불편했지만 무사히 학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 국제화팀 오리엔테이션에서 치안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었지만 눈만 마주치지 않고 시비만 붙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빅토리아 어학연수를 가기 전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영어로 소통하는 것 이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주로 수업시간 끝나고 선

생님께 내가 궁금한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도 태풍이 오는지,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영어소통 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핵심단어만 말해도 선생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되도록 번역기를 쓰지 않고 모르는 단어는 영어 단어장을 참고하여 대부분 영어로 소통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어학연수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한국에서 한국 김과 한국적인 간식을 생각하다가 약과가 좋을 것 같아서 약과를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가자가 한국인이었고, 3분에 1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였습니다 대부분 일본 학생들이 많았고 학생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연수 받으러 온 회사원과 대만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온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내가 먼저 국적을 물어보고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들을 나눠주며 선뜻 다가갔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인사해주었으며, 서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공유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의 생활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인생 최고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일출은 대략 새벽 4시에 해가 뜨며 일몰을 22시정도에 해가 졌습니다 처음 갔을 때 일몰시간이 늦어서 당황했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오히려 밤이 늦어서 좀더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도 25도 이상 거의 올라가지 않고 비도 딱 1번 잠깐 내린 것을 제외하고 흐린 날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습하지도 않았으며 덥지도 않은 최상의 여름날씨를 가졌던 걸 같습니다. 캐나다 사람들 또한 굉장히 여유가 넘쳤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버스에서 내릴 때도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또한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최대한 알려주시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마약허가 국가에 왔는데 다운타운 길거리에 마약냄새가 너무 역해 힘들었고 홈리스들이 시비를 건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 저는 Victor 선생님의 수업 중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로 누군가 앞에서 발표하는 일은 흔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자신의 고향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말로만 설명하면 청중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자료와 지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선생님께 PPT제작 허락을 받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PPT덕분에 발표도 더욱 수월하게 되었고 수업 후 평가지에도 선생님이 발표자로 덕분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지에 적어 주셨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과제는 Victor 선생님의 과제였는데 캐나다의 주요 인물 중 David Suzuki 라는 일본계 캐나다인(유전학에 기여를 한 인물)을 준비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 영어 실력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 학생들에게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PPT를 준비하여 발표를 했고 앞에 나와 발표를 했을 때도 내가 만든 PPT를 만든 과정을 기억하면서 발표를 하여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현지에서 저는 여러곳을 방문해보았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태평양과 연결되는 많은 강과 커다란 호수가 많았으며 호수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카약을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었

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급한 빅토리아 버스패스가 있어 최대한 하루종일 여러곳을 가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커다란 호수가 있는 테티스호와 과거 일본인 이주민이 살았던 재패니즈 가든, 여름철 온화한 기후로 재배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처치 & 스테이트 와인스 빅토리아에 가서 와인 시음 그리고 빅토리아 공항에 가서 규모와 주로 어디로 비행하는지 탐방을 하고 공항 옆에는 비행기 박물관에 가서 과거 세계2차 대전에 사용했던 비행기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한국전쟁에서도 사용되었던 비행기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학교에서 추가요금을 내고 부차트 가든을 간 것인데 부차트 가든은 1904년 로버트 핼 부차트와 그의 아내 제니 부차트가 만들었으며, 로버트 부차트는 석회석 채석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였고, 채석장 운영이 끝난 후 그곳을 정원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니 부차트는 채석장이 있던 자리에 토양을 채우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차트 가든은 점차 넓혀지며 지금의 정원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여름철에는 야외 음악 공연과 불꽃놀이를 하며, 정원을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저는 불꽃놀이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앞으로 원어민과 더욱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석할 것이고 영어 및 토익 공부를 하여 자기 개발에 더욱더 힘 써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어학연수를 통하여 내 자신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욱 더 넓어졌습니다.

맺음말

4주간의 빅토리아 대학교 영어 어학 연수는 저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대학교에서의 학습과 생활을 통해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지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느낀 성취감과 자신감은 앞으로의 영어 학습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참가하십시오. 수업 시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고 영어로 대화하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두려웠지만 단어배열 노력으로 하여 현지인들과 최대한 소통하였습니다. 셋째 갈수 있는 어디든지 방문해 보세요.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새로운 친구들 과의 교류는 영어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항상 친절하게 캐나다 어학연수에 대해 답변해주신 국제화에 정말 감사 드리고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신 현지선생님들과 빅토리아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연수를 받으며 많은 도움을 주고받은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업이 진행된 CST 건물)



(빅토리아 다운타운 야경)



(기숙사 내부)

